

통일외교안보전공

"한반도 평화, 우리에게 맡겨라, 통일외교안보전공!"

학과소개

하루도 놓치지 않아

뉴스에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해외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대표적이죠. 그만큼 정치, 외교, 안보는 국가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요.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6·25전쟁부터 2018년 남북정상회담까지, 파란만장한 역사가 서려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얽히고설킨 사례가 자주 있었지요. 소모적인 설전, 크고 작은 도발, 뜬금없는 대화 제안, 그리고 반복. 북한의 속내는 알다가도 모르겠고, 이제 그들과 '밀당'하는 것도 지치네요. 불안에 떨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면 좋을 텐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까요? 시작은 북한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우리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평화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통일, 외교, 안보 세 영역을 공부하고,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깊이 탐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당장 지금도 화두이지만, 향후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이니만큼 해당 분야의 지식의 앞으로도 꾸준히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전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38선의 철책선은 녹슬었지만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정녕 풀 수 없는 숙제인 걸까요? 아닙니다. 오랜 세월 가슴 속에 품어온 꿈을,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실현하리라 믿습니다.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통일외교안보전공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북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	북한정치론 북한학개론	북한인권문제 북한리더십연구	북한지리 조선로동당사	북한의사회생활 북한관광연구
통일 통일 한국을 준비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	남북한관계사연구	북한이탈주민연구 북한외교론	남북한통일정책론 북한협상전략론	남북통일세미나
외교 국제 정세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함	국제관계이론 한국외교사	유엔과국제기구 국제협상연구	이주및난민문제세미나 국제분쟁해결연구	한반도주변정세세미나
안보 안보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방법을 연구함	국가정보학개론	전쟁과평화연구 안보연구	한반도평화체제 북한군사론	사이버안보정책세미나

현장연구(FIELD STUDY ON UNIFICATION/DIPLOMACY/SECURITY)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요? 우리 전공은 학생들이 교수님 설명을 들으며 공부하는 데 그치게 하지 않습니다. 전공과목 중 하나인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통일·북한·외교·안보 관련 정부조직, 민간단체, 연구소 혹은 기업체에서 현장 체험을 하며 심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졸업 후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판문점’을 답사하며 분단사의 비극을 몸소 느끼고, 이해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해당 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 통일, 외교, 안보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대학원

북한학전공
통일정책전공

학부를 마치고 보다 깊이 공부하기 위해 세부전공(북한학전공, 통일정책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한반도 통일문제를 두고 남·북한 간의 정치와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을 총체적이고 학제적인 시각에서 연구함으로써 올바른 대북관과 통일관을 지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 및 공공기관

북한과 관련된
여러 기관

통일외교안보전공 학생들은 북한과 향후 통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통일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다양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거나 정책연구를 포함한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시험을 통해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순수비영리 NGO로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입니다.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내에는 ‘국정원 대북 정보부’라는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통일, 외교, 안보
관련 협회

이외에도 북한, 통일에 대한 전문 역량을 쌓아 관련 회의체나 협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통일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책수립을 하는 대통령 자문기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제반정책을 수립합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준비사업’, ‘국민계도사업’, ‘지역중점사업’ 등의 사업을 합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외교관 후보자 시험 / 인증기관: 외교부

외교관을 꿈꾸는 경우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치른 뒤 국립외교원에 입학합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선발 과정을 통과할 시 정식 외교관으로 임용됩니다.

외교관 후보자 시험은 필기, 서류, 면접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통일외교안보전공에서 전공 공부와 더불어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 외교관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증기관 : 외교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인증기관 : 국사편찬위원회

통일외교안보전공의 전공 특성상 졸업생들이 공공기관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가산점 또는 우대 요건을 적용하므로, 자격을 취득할 경우 취업 및 관련 분야로의 진출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 능력 시험 / 인증기관 : ETS, TEPS관리위원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통일외교안보전공 관련 진로 중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거나 외국 자료를 연구하기도 하고, 외교관의 경우 국제 회의에 참여하는 기회가 자주 있기 때문에 기본 어학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토플, 토익, 텡스,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등 기관마다 요구하는 시험의 종류와 수준이 상이하므로 지원하는 기관에 적합한 자격증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양병희 장학금

양병희 장학금은 학업지원장학금, 대외활동장학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업지원장학금은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 중,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학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2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고 직전학기 2.75이상의 성적이 필요합니다.

대외활동장학금은 통일·외교·안보 관련 외부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성적증명서, 대회 입상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1인당 최대 수혜금액은 100만원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옴니버스 프로그램

연천군 DMZ 서부를 직접 탐방하고,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안보, 북한, 임진강, 상송OP, 고랑포구, 고구려유적 등의 주제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통일외교안보 전공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Unification+ Program 장학금

전공동아리 연계 프로그램장학금(UNIS, WOORI, 북세통)과 전공 연계 프로그램장학금(전공스터디), 진로개척프로젝트 특강 연계 프로그램장학금(취업절벽극복장학금)이 있으며, 학업 증진 및 북한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나아가 진로 설정 및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장학금입니다.

통일외교안보 졸업생·전문가 초청 특강

통일외교안보전공에서는 졸업생을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재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교관에게 직접 생생한 외교 정보와 현실적인 외교관 생활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로부터 '취업 절벽 극복, 전략적 지원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들으며 통일외교안보전공 학생으로서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통일외교안보전공 학생들은 다양한 학술회의, 평화 포럼, 안보 대회 등의 통일·외교·안보·북한과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시아 청년 DMZ 평화 포럼은 DMZ 평화안보투어, 비정상회담, 한국문화체험, 초청 강연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및 통일에 대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주최 세계 장병, 청년 안보 비전 발표 대회에서는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한 청년의 사명과 역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글로벌 안보협력방안",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공조방안과 대응전략" 등을 주제로 특별 발표를 하고 약 2억 원의 상금과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학생자치활동

J.S.A

J.S.A는 'Jazzy Sound Acoustic'의 약자로 다양한 어쿠스틱 악기로 연주를 하는 밴드입니다. 캠퍼스 내에서 어쿠스틱 음악에 대한 필요성과 음악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2012년 5월에 결성되었습니다. 악기 본연의 울림과 보컬과의 조화,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형태의 음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말, 정기공연을 하고 있으며, 교내외에서 버스킹도 합니다.

FC남조선

FC남조선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의 축구 동아리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통일외교안보전공 학생들이 매주 화요일, 다른 학과 축구팀과 정기 교류전을 펼칩니다. 공정대체육대회나 쿠즈마컵 등 크고 작은 대회에 참가해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외교안보전공 내 유일한 운동 동아리로서 학우들의 스트레스 해소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소모임입니다.

UNIS(대학생통일북한연구회)

UNIS는 '실천하는 지성, 통일을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북한 및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학술단체입니다. 통일문제, 북한문제 등과 관련한 학술연구 및 대외활동을 통해 대학사회 내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술지식/연구발표회, 정기토론회, 학술제, 연합포럼, 토론회, 학회지발간, 북한전문가 초청 강연회, 중국어수업, 프레젠테이션 대회, 북한인권사진전, 아카데미,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 통일관련 대학생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로도 유명합니다.

WOORI

WOORI는 Wain Of Our Reunification Inducement의 약자로 통일을 이끄는 북두칠성이라는 뜻입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천안드림학교에 찾아가서 1:1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사회와 대학생 봉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힘쓰는 모임입니다.

미리보는 통일외교안보전공

통일외교안보전공을 준비하는 학생이 읽을만한 책으로는 『한국의 외교 안보와 통일 70년』, 『칼날 위의 평화: 노무현 시대 통일외교 안보 비망록』, 『토크 투 노스 코리아』, 『외교는 감동이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와 정치 체계 및 안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양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천 영화로는 '공동경비구역 JSA', '태극기 휘날리며', '연평해전', '인천상륙작전', '강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개봉한 영화부터 최근에 상영한 영화까지 다양합니다. 각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많은 걸 느끼고 깨닫는 기회가 될 테니 꼭 한번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Q. 정치를 잘 알아야 하나요?

A.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뉴스와 신문을 꾸준히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치 및 외교 소양을 쌓는 방법으로 관련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 활동으로는 '시사토론 동아리', '신문 읽기', '정부 부처(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견학', '시사교양 TV 프로그램 시청'이 있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개인 혹은 단체로 참여 가능한 활동이 많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여러 활동을 체험해보세요. 특히, 외교부에서 주최하는 '외교관과의 대화'라는 간담회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현직 외교관을 초청해 대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 자리인데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한 번 참석해보세요!

Q. 강의 외에 전공 관련 체험활동이 있나요?

A. 네. 우리는 책으로만 공부하지 않습니다. 안보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교수님과 함께 판문점과 같은 남북한 접경지역을 방문하기도 하고,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생한 특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8년, 주UN 대사를 역임한 오준 대사를 초청해 특강을 들었고, 2019년에는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님과 학생들이 경기도 연천의 군사 지역을 방문해 해당 부대 간부로부터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Q. 영어를 잘해야 하나요?

A. 외국인 교수님이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 수업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 하면 도움이 되지만 못하더라도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영상과 사진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업 내용을 알아듣는 데 문제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전공에 대한 관심입니다. 해당 분야에 열정만 있다면 수업 시간에 다루는 화제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특별취재**통일외교안보전공을 빛낸 인재들**

- ◆ 2014년, 한국위기관리연구소에서 주최한 제 4회 전국 대학생 국가안보 국방정책 우수 논문발표회에서 북한학과(現 통일외교안보 전공) 김진원(09학번) 학우의 논문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 ◆ '2014 대학생 통일을 그리다' 프레젠테이션 경연대회에서 '통일 후 통일을 위한 마인드 테라피스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북한학과(現 통일외교안보전공) 이지윤(13학번) 학우가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 ◆ 2015년, 고려대학교 북한학과(現 통일외교안보전공)가 전국 대학생 토론 경연 대회에서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 ◆ 2018년, 북한학과(現 통일외교안보전공) 채홍윤(16학번) 학우가 18회 「2018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습니다.
- ◆ 2018년 북한학과(現 통일외교안보전공) 백승국(15학번) 학우가 「2018 국방부 정신전력강화 연구논문 공모전 일반부 우수상(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양병희 목사에 대하여

통일외교안보전공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양병희 장학금'의 기부자, 양병희 목사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북한학과(現 통일외교안보전공)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정치학 석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명예신학박사), 감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목회학 박사)에서 학업을 이어왔으며 현재 동북아한민족협의회 대표회장, 영안복지재단 이사장, 기독교연합신문사 사장, 영안장로교회 당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병희 목사는 남북화해와 우리 민족의 평화 와 통일을 위해 20여 년간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결핵, 영양제, 항생제 등) 지원 등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는 체계적인 대북접근과 올바른 대북지원 그리고 북한지역의 선교구상을 위해 대북지원 NGO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고, 이러한 고민과 함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북한학과(現 통일외교안보전공)에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입학을 꿈꾸는 예비 통일외교안보전공 학생들에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군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군 복무 중, 관제사로 근무했는데 관제실 모니터에 있는 군사분계선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곳에 막대한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북한과 통일에 관한 책과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북한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現 통일외교안보전공)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학과 내 북한이탈청소년 교육봉사 소모임 'WOORI'에서 활동했습니다. WOORI는 2013년 시작된 통일외교안보전공 소모임으로, 성장배경 특성상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술, 과학, 체육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어렵게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통일을 미리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가올 통일 한국을 이끌어 갈 주역이기도 하니 그들과 함께 꿈을 그려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활동하다 보니 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통일문화센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통일문화센터는 통일부,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남북한 화합을 위한 복합 문화·교육 공간입니다. 통일문화센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통일문화센터 개관 후 운영 방식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통일부와 서울시, 남한 주민과 북한 출신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해당 기관이 위치한 서울 마곡지구의 특성을 활용했습니다. 통일전망대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환경, 그리고 이곳을 농업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서울시 정책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체험관, 지역주민 열람실, 다문화·탈북청소년 멘토링 공간 등 총 10개의 운영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DMZ 연계 안보 견학, 도시농업 교실, 한국어 교실 등 총 8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관련 기관과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도록 구상한 아이디어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전공 수업 중 '북한 엘리트연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수업은 북한 정권을 세운 정치세력들을 비롯해 현재 북한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을 모두 다루는 수업입니다. 조직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사람에서 나오기에 그 인물들을 이해하는 것이 해당 조직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북한을 이끄는 엘리트 그룹을 4세대로 나누어 분류·분석한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북한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도층도 대부분 세습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몇 세대에 걸쳐 겪은 대내외 사건과 끼친 영향을 큰 흐름으로 읽어 북한을 더 큰 틀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조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1단계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권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 약 3만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는데, 그들을 품지 못하면 3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과 화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2단계로 '사회적 기업 로펌' 설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분쟁 해결과 지역사회 기여에 재능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북한학·법학 전문가로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싶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 통일 한국의 법과 제도를 연구할 것입니다. 특히, 분단 상황으로 제한된 남북 주민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통일 한국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사회의 틀을 새롭게 짜고 싶습니다. 나아가 '법'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법을 지키려는 사람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통일을 '나의 일'로 여깁니다. 통일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통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잠시나마 고민해본다면 통일을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통일 한국을 꿈꾸는 청년
통일외교안보전공 소모임 WOORI 회장 출신
16학번 채홍윤